

# 「雍固執傳」研究

과 정 식\*

## 목 차

1. 머리 말
2. 선행업적의 반성적 검토
3. 인물의 구성과 그 의미
4. 갈등의 전개 양상
5. 중간자 인물의 역할과 성격
6. 작자의식과 설화의 수용양상
7. 맺는 말

## 1. 머리 말

宋晩載의 觀優戯는 「雍固執傳」에 관한 最古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그리고 1968년 최래옥님에 의해<sup>2)</sup> 최초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그동안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의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雍固執傳」의 배경적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설화의 탐색에 거의 관심이 집중되다시피 해왔던 것이 這間의 사정이었다.<sup>3)</sup> 本傳이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의 하나를 소설화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일찍부터 알려져서, 그에 관련된 설화가

\* 東義大 講師

1) 宋晩載(1769~1847) 觀優戯 第十七首.

雍生員闖一窟偶 孟浪談傳孟浪村  
丹籙若非金佛力 疑真疑假竟誰分

2) 崔來沃, 「雍固執傳」의 社會史的 考察, 우리文化 2, 우리文化研究會, 1968.  
崔來沃, 說話와 그 小說化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 - 特別 장자못 傳說과 雍固執傳의 경우 -, 서울대 대학원, 1968.7.

3) 張德順, 雍固執傳과 遁甲說話,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에 出版部, 1970.  
pp. 201-208.

金鉉龍, 雍固執傳의 根源說話研究,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國語國文學會, 1973.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鄭仁漢, 雍固執傳의 說話研究, 文學과 言語 1, 文學과 言語研究會, 1980.

널리 민간에 유포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시사되었음에도,<sup>4)</sup> 오랜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장덕순님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근원설화의 탐색작업이 본격화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한동안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배경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sup>5)</sup>

한편 이상과 같은 배경연구에다 작품의 이본문제<sup>6)</sup>까지 진척된 일차적 업적을 정리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과제는 마땅히 본격적인 문학 내적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우선 작중인물에 관심하여 작중의 위치와 역할을 검토하고, 나아가 주제적 의미 구현에 어떻게 관련되고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작자(층)의 선택된 의도에 의해서 작중에 등장하여, 사건전개에 깊이 개입하는 중간자 인물의 역할을 통해, 작자의식을 알아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本傳의 주제적 의미를 단순히 설화나 삽화수준의 分片的 의미로부터 기계적, 산술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증례의 방법론적 미숙성을 지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원천으로서의 설화들이 작자(층)의 현실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작품 속에 용해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체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설화(소재)와 소설과의 거리미학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傳은 金三不校注의 활자본 이외에도 崔來沃本, 姜鏗變本, 金東旭本 등 세 편의 필사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이본에 관한 연구는 보다 깊이 있게 더욱 진전되어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업적을 토대로 하여 네 종류의 이본들을 거의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활자본<sup>8)</sup>을 대본으로 삼는다.

4)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 406.

5) 註3) 참조.

6) 崔來沃, 雍園執傳의 異本考, 국어국문학 84, 國語國文學會, 1980. 10.

7) 崔來沃, 앞의 논문.

8) 韓國古典小說選, 古典教材刊行會 編, 새글사, 1975. pp. 270-294.

## 2. 선행업적의 반성적 검토

본장은 본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업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방향을 제기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지금까지 본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작품 발생의 연원을 추적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재사적 배경연구는 다시 그 연원을 재래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경우와 외래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경우, 그리고 이 둘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최태옥님은 ‘장자못 傳說’을 원천으로 하여 小說化한 것이 「雍固執傳」이라고 하였고<sup>9)</sup> 김현룡님은 조선조 명종 19년에서 선조 12년 사이 大丘府에서 일어났던 ‘柳淵獄事’와 白沙 李恒福의 ‘柳淵傳’에 근거하여, 결국 실존인물인 柳游(柳淵의 兄)의 眞假人 趣旨가 「雍固執傳」의 근원설화로 발전해 간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0)</sup>

이에 대해 정인한님은 南傳臟經 Ja taka(本生經) 78장 ‘일리샤 長老의 前生이야기’라는 불교설화를 분석하고, 「雍固執傳」과의 대비를 통해서, 眞假人 趣旨가 本生經에 나오는 고대인도의 불교설화를 그 상한선으로 해서 생겨났다고 하였다.<sup>11)</sup>

이와는 달리 일찍부터 김동옥님은 근원설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먼저 쥐가 인간에 환생하여 爭主하는 민간설화를 직접 들은 바가 있음을 전제하고, 더구나 짚이나 허수아비 같은, 너무나 향토적이고 농촌적인 소재로 말미암아 이를 민속전승의 영역에서 근원을 찾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생물의 人道換生說話는

9) 崔來沃, 說話와 그 小說化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 — 특히 장자못 傳說과 雍固執傳의 경우 — 서울대 대학원, 1968.

10) 金鉉龍, 雍固執傳의 根源說話研究,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1973.

11) 鄭仁漢, 註3) 참조.

불교의 동물인 人道換生說話로부터 轉變한 듯하여 「雍固執傳」의 眞假人爭主說話가 불교설화의 인과관에서 나온 교훈설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12)</sup>고 하였다.

그리고 장덕순님은 우리 고유의 민속에서 유래한 ‘둔갑’과 불교에서 유래한 ‘虛僧’ 등 두 가지 설화적 요소를 줄거리로 하여 소설화한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 자료로서 ‘취설화’와 金·慶 爭主說話’를 제시하고, 다시 이 두 설화의 모태설화라고 할 수 있는 인도설화 ‘구두쇠 이리이사’를 소개한 바 있다.<sup>13)</sup>

한편 앞서 순전히 재래적인 것에서 근원을 찾으려던 김현몽님 역시 복합적인 원천으로 다시 파악하려 하였다. 즉 ‘太平廣記’에 수록되어 있는 ‘開司法’과 ‘庾氏’ 설화가 「雍固執傳」에서 도승의 신술에 의해 꼭 같은 모양의 假雍이 생기게 된다는 발단부의 비현실적인 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이것이 柳淵, 柳游형제의 설화인 ‘柳淵傳’의 眞假人 主旨와 결부되어 권선징악과 勸佛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풍자소설을 구성해 냈다고 하였다.<sup>14)</sup>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대로 애초에 재래적인 것에 한정하여 원천을 파악하려 애썼던 김현몽님도 종합적인 관점으로 태도를 수정해 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래적인 것에서보다 외래적인 것에서 원천을 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컸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간전승을 모태로 하는 고소설 작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본전의 경우에서도 그 원천에 대한 탐색작업은 일정한 한계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연구자의 손에 입수된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해도 결국은 현전하는 자료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실되거나 미처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생각할 때, 한 작품을 두고서 어느 설화의 소설화라거나 아니면 그 배경적 원천이 어떠한 설화라고 하여 단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12) 註4) 참조.

13) 註3) 참조.

14)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한 유사성을 문제 삼고자 할 경우에도, 그 수준과 정도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물을 포함한 화소 단위의 수준에서부터 전체적 유형에 이르기까지 그 유사성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화의 전파성 이전에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나 공통의 사유방식에 따른 유사성과 세계성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민족문화의 기층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설화의 수집과 연구가 시작된지 이제 겨우 반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미처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걸뺏으면 남의 것을 빌어오거나 외래적인 것을 들먹이거나 해 왔었다. 요컨대, 근원설화의 탐색은 어디까지나 완결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 작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제시된 결과들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최래욱님의 「『雍固執傳』의 사회사적 고찰」<sup>15)</sup>이다. 먼저 작품 전반을 虛僧主旨의 전반부와 眞假人 主旨의 후반부로 분석하고, 이를 특히 사회상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반인륜적인 수전행위를 통해, 유교관념의 나약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약자에게 강하나 자신에게 무능했던 토호양반을 볼 수 있고, 불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에도 그것이 다만 해학적 요소를 위한 무리한 설정으로서 순수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시당했던 당시의 불교관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장덕순님은 「취설화」로 불효를 징계하고, 「金·慶 爭主說話」는 배불행위를 징계함을 각각의 주제로 하여, 이 두 설화가 「雍固執傳」을 형성하는 두 갈래의 특이성을 나타냈다고 전제하고, 특히 「金·慶 爭主說話」에서는 동기가 의식적이고 적극성을 띤 배불행위요, 그 응징에 나선 존재가 승려요, 그 결말을 해결하는 것도 승려의 錫杖이었다는 것은 이 설화의 불교적 의의를 집약하게 하여 훨씬 「雍固執傳」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雍固執傳」은 이와 같은 두 요소를

15) 註2) 참조.

즐거리로 하여 ‘孝’를 의식적으로 내세워,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한 작품으로 평가하였다.<sup>16)</sup> 결국 이상과 같은 논의는 작품형성에 원용된 설화의 삽화 수준에서 가능한 의미를 그의 소설화인 『雍固執傳』의 전체의미로 확대 해석한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이석래님은 종래의 인상주의적 방법을 벗어나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살피서 계층간의 갈등원리를 그 주제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옹고집의 불승능력이 곧 배불은 아니다. 결승학대는 노모학대와 함께 일종의 악질적 重錢奴根性이다. 권력과 부력의 지배에서 시달리는 서민들이 그에 대항하여 고발한 구체적인 죄목이고 악덕일 뿐이다.<sup>17)</sup>”고 하여 작품형성의 중심소재인 두 설화의 의미를 일관된 논리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雍固執傳』은 악덕 배금주의자의 타락과 생산적인 서민의 진실이 충돌하는 현장이고, 이 충돌은 조자연적 능력이 차용됨으로써 공동체 윤리를 회복, 응화를 원망하는 서민의 승리로 귀결되는 결구를 갖추고, 이에 불교적 변신, 쟁주 모티브는 옹고집의 권력과 부력을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굴욕적인 가치 전략을 위해 차용된 것일 뿐, 불교적 응보주의의 역설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생산적 사회의지를 역행한 권력과 부력에 대한 서민의 항거가 이 작품의 주된 주제이며, 이때 ‘학대사’는 막대한 권력과 부력에 대립된 빈약한 서민의 편에 들어 서민의 승리로 이끈 제3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sup>18)</sup>고 하였다. 그리고 악덕 수전노와 선량한 피지배서민이 대비되고 이에 옹고집의 가치가 부정됨으로써 풍자목적이 성취되는데 허옹이 진옹의 가부장권을 박탈하고 그의 현실과 야합함으로써 생긴 조자연의 비속화도 놓쳐서는 안될 가치저하의 한 양상으로서 결국 불승까지도 풍자의 대상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 모든 낡은 가치를 부정하는 서민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sup>19)</sup>고 보았다.

16) 註3) 참조.

17) 李石來, 『雍固執傳』의 研究, 冠岳語文研究 3, 서울대 국문과, 1978. 12. p. 340.

18) p. 347.

19) p. 351.

그런데 「雍固執傳」에서 갈등의 주체를 권력과 부력의 일방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생산적 민중으로 파악한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된다. ‘작중의 등장인물이 응고집 이외에 아내, 노모, 탁발승, 자식, 며느리, 다수의 노비, 김혈감과 수명, 학대사와 허웅 및 도사가 있으나, 여기서 진웅과 대립적이거나 긴장, 갈등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 서민층 인물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작품의 전반부는 단순히 진웅에 의해 일방적으로 악행이 자행되고 있을 뿐, 이에 패배를 겪게 되는 노모와 탁발승이 결코 서민을 대신하는 인물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작품은 후반부에 와서야 비로소 긴장을 수반한 진정한 대결관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도 학대사를 대리한 허웅의 등장에 따른 것일 뿐, 서민적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없다. 이석래님이 지적하기를 허웅이 진웅의 가부장권을 박탈한 후 그의 현실과 야합함으로써 생긴 비속화를 통해 볼 때, 결국 학대사나 불교까지도 풍자의 대상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서민이란 자신까지도 풍자하는 인물이란 말인가. 따라서 응고집의 악과 서민의 선이 대비되어 응고집의 가치가 부정, 저하되고 피지배 서민의 승리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무리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인한님은 眞假人 趣旨는 도그마적 主旨를 위한 응징적 수단으로 유형화되어, 물욕의 메개에 의한 도그마적 취지를 가진 모든 고전소설에 두루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그 배경구조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雍固執傳」의 주제는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휴머니즘적 정신의 양양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眞假人 趣旨는 축재형의 악인을 교화하기 위한 계기물적 중심요소로서, 그 악인물의 積惡에 대한 응징에 있어 인과응보적 自作孽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sup>20)</sup>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작품 자체의 내적 구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보다 설득력있게 논의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 자체를 물질과 정신의 이원성으로 파악하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질보다 정신이니 하는 경우 그 한계가 무한정할 뿐더러, 물질과 정

20) 註3) 참조.

신이 꼭히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배경적 원천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 작품 자체의 유사성으로 곧장 이해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전에서 흔히 얘기되고 있는 몇 가지 화소단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작품의 전체적 의미까지 동일 선상에 두고 함께 논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화소는 그 자체로 遍在性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의 수용과 변용까지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화소의 진정한 의미는 통일적인 작품 구조내에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과의 긴밀한 체제와 관련하여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개관해 본 셈이다. 이제부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내적 구조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차례이다.

### 3. 인물의 구성과 그 의미

소설을 다소 복잡한 플롯을 통해 현실의 삶을 나타내는 인물과 그 행동이 생생하게 묘사되는, 허구의 산문으로 된 이야기<sup>21)</sup>라고 할 때, 작중인물은 작품 연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학 내적 연구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한계성은 인물연구를 보다 구체화하고 심화함으로써 지양,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장은 인물의 구성(설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물 사이에 작용하는 역학관계를 통해서, 작품의 전체의미 실현에 의의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인물을 각각 밝혀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물 구성이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성격짓게 되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본전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웅과 가웅, 두 인물의 쟁주 주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리하여 흔히 진웅과 가웅 사이에 이뤄지는 긴장과 대립관계를 일차적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나 실체가 그

21) M. Boulton. The Anatomy of the novel.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5. pp.10-11.

렇지는 않다. 가옹은 학대사의 주술력이 만들어 낸 인물로서 곧 학대사의 트릭을 대리 수행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진옹과 가옹 사이의 대립관계는 진옹과 학대사의 그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학대사는 진옹과의 긴장, 대립관계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에게서 부름을 받고 도사를 또한 대역하는 인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도사는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술법을 갖춘 초자연적 존재이다. 그러한 도사가 학대사를 불러 “옹당촌에 옹좌수라 하는 늬이 불도를 능멸하고 중을 보면 원수같이 한다 하니 그 늬의 집에 가서 차막하고 돌아오라”<sup>22)</sup>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학대사가 진옹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 자신이 또한 크게 봉욕을 당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치 수단 가운데 짚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진옹과 대결케 했던 것이다. 결국 진옹과 가옹, 진옹과 학대사의 대립관계는 진옹과 도사의 대립관계 속에 함께 포괄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도사는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가 문제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도사의 등장에 일종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전반부에서 진옹이 그의 노모와 탁발승에 대해 자행했던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한 응징적 수단으로 작자(층)에 의해 선택된 인물이 바로 초자연적 존재인 도사였던 것이다. 도사는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작품의 전반부에서 성립된 일차적, 기본적 갈등 체계를 조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작자(층)로부터 선택되어 등장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인물 대신에 비현실적인 인물이 선택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까닭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자의 특별한 의도와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논리를 초월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절대적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덕의 주체인 진옹을 효과적으로 징치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에서 선택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고소설에

서 혼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랜 동안의 문학적 관습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진용의 악행과 대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도사가 아니고, 전 반부에서 노모와 탁발승이 함께 구축하는 효도와 불교신앙 등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이념적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들이 별개의 것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계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환경적 요인으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효나 매불이 별개의 의미로 독립하여 존재한다기보다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위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삶의 양식<sup>23)</sup>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려 한다. 진용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과 노모와 탁발승이 대변하는 삶의 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바로 대립과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며, 사회상과 관련하여 진용을 절대적 힘의 우위에 두고, 노모와 탁발승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패배를 겪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인간적 삶의 실체는 본래부터 물질과 정신을 상호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것으로 이원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 인물의 삶의 양식을 두고 물질추구니 정식적인 것의 가치추구니 하는 일방적 이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중에서 진용을 전적으로 배금주의에 탐닉해 있는 인물로 형상화 해 놓은 것은 그가 선택한 삶의 양식의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극대화하려는 데서 차용된 인물의 회화화 수법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진용을 두고 볼 때, 그는 석승의 부와 도주공의 성세를 부러워 하지 않을 정도로 가사가 넉넉함에도, 머느리는 명주 짜기, 딸아기는 수놓기, 곰배 팔이는 잣자리 엮기, 앉은방이는 방아찢기에 내물고, 팔십 당년 늙은 모친이 병들어 누웠는데도 명돌방에 누워 조반석죽으로 지내게 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전적으로 물질만을 추구하고 정신적 세계를 배제, 망

23) 에리히 프롬은 두개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所有와 存在로 설명하면서, 이는 自己와 世界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志向性(orientation)이며 성격 구조(character structure)라고 하였다. (에리히 프롬, 한완상 외역, 所有냐 存在냐?, 전망사, 1978. p.44 참조).

각한 것이 아니었다. “안연같은 현학사”니<sup>24)</sup> “도척이같은 못쓸놈”<sup>25)</sup>이니 하면서 학대사를 호령하되 “네의 마음 고이하여 부모은혜 배반하고 삭발 위승 부체의 제자되어 아미타불 거짓공부, 어른 보면 동명달라 아해보면 가자하고 불충불효 네의 행실 내이무 알았으니 동명주어 무엇하리”<sup>26)</sup> 하였다. 또 그는 만약 시주를 해서라도 무슨 실리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주를 할 위인이었다. 학대사가 말하기를 “청용사에 축원하여 만고영웅 소대성을 넣어 갈충보국하여 있고 천수공부 고집하여 주상전하 수만제를 조석으로 발원하니 갈충보국 아니오며 부모모은 아니리까. 그런 말씀 마음소서”<sup>27)</sup> 하자, 이에 진웅은 “네 무슨 지식이 있느냐, 내의 관상하여 다고.”<sup>28)</sup> 하여 어느 정도 관심과 기대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실망과 분노를 결과할 뿐이다.<sup>29)</sup> 진웅은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기대와 실망, 관심과 분노라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결국 조화롭고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힘의 우위에 의한 세계의 소유와 지배단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닐 뿐이었다.<sup>30)</sup> 이와 같은 소유와 지배논리에 미흡하거나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무가치해 보였다. 이 결과 그는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관습에 위배되는 부조화, 불균형의 파격적 인물로 특징지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노모와 탁발승은 어떤 인물인가. 힘의 절대적 열세로 말미암아 대결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만을 거듭하는 이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진웅의 삶의 양식과 대립되고 이질적인 삶을 대면

24) p. 272.

25) p. 272.

26) pp. 274-275.

27) p. 275.

28) p. 275.

29) 좌수념 상을 살피오니 눈섭이 길고 미간이 널우었으니 성세는 요족하나 누당이 곤하시니 자손이 부족하고 면상이 좁았으니 남의 말은 다니틀고 수족이 적었으니 오사(誤死)도 판듯하고 말년에 상한병(傷寒病)을 얻어 고생하다 죽사리다(p. 275).

30) 이 경우에는 주체도 객체도 물건(thing)으로 환원하여 인간, 지식, 관념, 신(神), 진강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며, 이 소유를 자기 자신의 가치와 동일성(identity)의 증명으로 삼는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286 참조).

하는 인물이다. 에리히 프롬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자를 삶의 소유양식이라 부를 수 있다면, 후자는 삶의 존재양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삶의 소유양식을 취한 진웅에게서는 소유가 삶의 절대적 목적이기에 세계와의 관계는 소유와 점유로 나타나며, 항상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갈망을 갖게 되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 우위를 갖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sup>31)</sup> 이때의 행복이란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기의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선악이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삶의 존재양식을 택한 경우에는 타인과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진실한 만남으로 세계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자기 실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sup>32)</sup> 따라서 노모와 타발승에 대한 진웅의 악덕행위는, 곧 信佛과 孝로서 표상되고 있는 동양적 사상이 핵심적 요소로 이룩해 놓은 삶의 존재양식에 대한 삶의 소유양식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작자(총)은 초월적 존재인 도사를 등장시켜 작중 사건전개에 개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선택된 의도를 대리 수행케 한 것이다. 도사의 입장에서 응고집은 마땅히 응징되어야 하고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러기에 주체적,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는 세계창조의 원리로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데 대한 확실한 권위를 보여야 했고, 또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세계질서를 확고한 상태로 회복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노모와 타발승이 대변하는 삶의 존재양식이 적극 옹호되고, 진웅의 소유양식이 부정되는 역전극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요컨대 본전의 인물구성엔 노모와 타발승이 진웅에 대해 일차적, 기본

31) 그러나 삶의 소유양식에 있어서의 個人間的 관계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경쟁, 적대의식, 공포 등이기 때문에 끝없는 탐욕과 갈망이 있을 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160 참조).

32) 삶의 존재 양식은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구속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며(to give), 共有하며, 함께 관심을 나누는 ‘살아 있는 관계’가 된다(같은 책, p.286).

적인 대립, 갈등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 도사가 작자(중)의 의도를 대리 수행하는 중간자 인물로 등장하여 사건전개를 주도함에 따라서, 학대사와 가옹이 역시 도사를 직접적으로 돕는 대리자로 등장,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의 부수적 인물들은 사건 전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4. 갈등의 전개 양상

이제 이상과 같은 인물구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갈등이 어떻게 조성되고 전개되며 결말에 가서 어떤 양상으로 해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작품을 단제별, 단락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가. 도입부 (1) 응고집의 인물소개(최초의 상황)

나. 발단부 (2) 노모에게 불효함.

(3) 불도를 능멸하고 탁발승을 원수같이 대함.

다. 발전부 (4) 도사가 진웅의 징치를 위해 학대사를 보냄.

(5) 진웅이 다시 학대사를 능욕함.

(6) 학대사가 술법으로 가옹을 만듦.

(7) 진·가옹이 쟁주함.

(8) 관아에 송사하여 진웅이 패함.

라. 해결부 (9) 진웅이 개과천선함.

(10) 도사가 진웅을 용서하고 술법을 써 가옹을 제치함.

여기서 갈등과 대립의 발단은 진웅이 취한 삶의 소유양식이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힘의 우위에 의한 소유와 지배가 노모학대와 불승능멸이란 행동양식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노모와 불승이 진웅에 대해 일차적인 대립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의 절대적 열세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과 패배를 거듭할 뿐, 사건전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이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한 사회상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서 작자(중)의 현실인식에 접맥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일차적 긴장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역동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로서, 작자의식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인물이 도사이다. 도사는 초월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합리적인 논리에 구애 받지 않으며, 따라서 작자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인 인물이다. 도사가 사전전개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진웅의 삶의 양식이 부정되기에 이르고, 현실논리에서 거듭 희생과 패배를 겪었던 노도와 탁발승의 그것이 긍정되어 위기가 극복되는 역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도사에 의해 전자의 소유양식이 비본질적 가치로, 후자의 존재양식이 본질적 가치로 자리바꿈을 하고, 크게 손상되었던 세계의 질서를 확고히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때 도사의 대리자로 학대사가 선택되고, 다시 그의 주술력이 가운을 만들어낸다. 결국 대리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실체는 진웅의 성격 변화를 지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취해진 것이 이른바 眞·假爭主의 설화적 복록이었다. 결과적으로 진웅이 도사의 등장으로 인해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다시 세계의 질서안으로 수용된다는 인본주의적 관념<sup>33)</sup>을 이 작품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학발 우리도친 다시 봉양하고지고.”<sup>34)</sup> 하는 결정적인 질변화를 계기물로 해서 마침내 도사는 진웅에게 부적을 주어 가운을 제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곧 최종의 해결적 사건으로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규범성으로부터 일탈해 있던 인물의 재수용인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히 갈등의 전개양상을 살펴본 바, 그 발단은 삶의 양식에서 이질적, 대립적인 인물들이 서로 만나는 데서 유발된 필연적 상황이었으며, 그 해결 또한 초월적 존재를 통한 진웅의 성격 변화<sup>35)</sup>에 의해 이루어

33) 存在와 所有의 본질적 차이는 인간 중심의 사회와 물질 중심의 사회 사이에 있다고 하겠으며, 소유에의 지향은 산업화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p.36-37 참조).

34) p.287.

35) 진웅의 성격이 빈틈없고 꼼꼼하다든가, 완고하다든가, 심술궂고 고집스럽다든가 하는 예를 볼 때,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항문애적 성격(anal charac-

어지는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따라서 본전은 진웅이 서사전개의 전 과정에서 역할하는 주인공이므로 작품의 전체적 의미 또한 주인공 진웅의 삶의 양식을 문체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중간자 인물의 역할과 성격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차적 갈등체계에 중간자 인물로 개입하는 부수적 인물이 도사였다. 그는 작가의 선택된 의도에 의해 등장했다가, 작가의 작중 개입을 대리 수행한 후에는 다시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소비재적 존재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본전에서는 도사가 작자의 의도를 대리 수행함에 있어, 학대사라는 제 2의 중간자적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사의 존재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학대사가 직접 진웅을 상대역으로 하고 사건전개에 개입, 그 주역으로 상승하여 마침내 상대역의 성격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작중 역할을 살핀다는 것은 결국 작자의식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그의 역할은 화해지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불승들이 자기 옹고집을 정치할 방도를 말하되

“옹고집을 잡아다가 지옥에 업수하여 영불출세하게 하옵소서.”<sup>36)</sup>

“해동청 보래매 되어 청경 운간 높이 떠서 석산에 머물다가 표연이 달려들어 옹가 네가리를 두 발로 덤벼 쥐고 두 눈을 이군한 오수박 파듯 하여이다.”<sup>37)</sup>

“단첩청산 맹호되어 야삼경 깊은 밤에 담장을 넘어 가서 옹가를 물어다가 산고곡실 무인처에 뼈 없이 먹서리다.”<sup>38)</sup>

---

ter)에 결부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소유하며 절약하며 저장하는 일로 그의 기본적 에너지가 지향되는 성격이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121 참조).

36) p. 276.

37) p. 276.

38) p. 276.

“신미산 여우되어 채의단장 곱게 입고 호색하는 고집의 품에 누어 단순호차 반개하여 좋은 말로 응고집을 속일적에 ‘첩은 본대 월궁선녀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대 갈바를 모르더니 산신이 지시하여 좌수님과 연분 있다 하옵기로 찾아왔나이다’ 하며 온갖 교태 내보이면 용가 필경 대혹하여 등치며 배만지며 온갖 화롱하다가 옥풍상한 나서 죽게 하옵소서.”<sup>39)</sup>

하여 철저히 차별위주로 나온 데 반해, 학대사가 취한 설화적 목록의 眞·假爭主의 방법에는 인간적 휴머니티가 넘치고 있다. 작품 결말이 화해와 구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러한 중간자 인물의 인본주의적 성격과 그 역할에서 결과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중간자 인물의 역할이 상대역의 성격변화를 목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 애초에 진웅은 수직적 사과의 인물이었다. 힘의 우위로 일방적인 소유와 지배가 가능한 인물였고 남과의 대등한 관계, 진실한 만남이란 생각태 볼 수도 없는 인물이었다. 이에 불효와 학승은 그러한 수직적 사과의 구체화된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진웅의 성격변화를 향해 진행되는 眞·假雍의 爭主과정에서 허용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적된다.

“이 늙이 우리 세상을 앓으랴고 이리한다.”<sup>40)</sup>

“부지하허인이 언어동정과 형용이 날과 같은 사람이 나의 재물 뺏으려고 뜻쓸 비계를 내어 난제하고 가산을 분별하니 이러한 변이 어때 또 있는가.”<sup>41)</sup>

“민이 세상을 아되리다. 곡식두태 합하여 이천백석이요, 마구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돌숫돌 합이십이수요, 암닭장닭 합육십수요, 기명등 안성방자 유기열 벌이요, 앞달이 반달이며 이청장 화류문갑 용강방장 각계수리 산수병풍 연화병다 있사옵고…… 은지환이 이십결이요, 금지환이 한죽이요, 비단 청홍자색 합하여 열셋필이요, 모수가 설혼통이요, 명주가 마혼통이온중…… 저 늙이 민의 세간 이렇듯이 유여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총정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늙을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옵소서.”<sup>42)</sup>

39) p. 277.

40) p. 281.

41) p. 282.

42) pp. 284-285.

“하마트면 아칸 세상을 저 늬에게 앓기고 이런 일등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먹을 번 하였다.”<sup>43)</sup>

고 하여 진웅의 삶의 양식이 구체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웅의 소유와 지배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세간으로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는 千字抽句, 唐音唐律, 史略通鑑, 小學, 大學, 論語, 孟子, 詩傳, 書傳, 周易, 春秋, 禮記, 周禮, 總目까지 거의 모든 책을 다락 안에 쌓아두고 있을 정도이다.<sup>44)</sup> 이런 데서도 물질과 정신이 테제와 안티-테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남과의 대등하고 진실한 만남을 거부하고, 소유지향의 삶의 양식을 고집하는 진웅이 도사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또는 보다 구체적인 물로서의 학대사가 등장함으로써, 확실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격의 변화를 가져와, 도사의 술법을 탄복하여 노모에게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신하니 그 어짊을 남들이 다 칭찬하게 되었다.<sup>45)</sup>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사가 진웅의 삶의 양식을 철저히 부정하고, 노모와 탁발승에 의해 대변되는 삶의 존재양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점이다.<sup>46)</sup> 바꿔 말해서 수직적 지배논리에 맞서서 수평적 공동체 윤리의 회복이나 확립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 6. 작자의식과 설화의 수용양상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창작의도나 작자의식이 본전의 배경적

43) p. 286.

44) 存在의 양식에 있어서의 가장 적당한 정도의 지식은 보다 깊게 아는 것이다. 그러나 所有의 양식에 있어서는 그것은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66.)

45) p. 290.

46) 「파우스트」는 삶의 존재양식과 소유양식 사이의 갈등의 극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후자는 메피스토펠레스로 대표된다(에리히 프롬, 앞의 책, p. 36.)

원천 구실을 했다고 주지되고 있는 민간설화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용시켜 수용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쥐설화’는 쥐에게 숯밥을 퍼준 며느리의 그다지 의식적이 아닌 불효가 발단이 되어, 쥐가 假媳父로 변신해서 爭主하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며느리가 시집 식구들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는 결구로 볼 때, 다만 眞·假 두 인물의 爭主 主旨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 민간사고의 동화적 분위기를 벗지 못한 소박한 설화라 할 수 있다.<sup>47)</sup> 眞媳父가 감정적이거나 패배를 겪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진실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의외의 고난이다. 그 점에서는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微物에 배운 동정이 결과적으로 불효가 되었을 뿐, 전혀 의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金·慶 爭主說話’는 乞僧을 학대한 慶姓은 假慶에 패하여 赤貧하게 되고, 반대로 乞僧을 후대한 金姓은 부유하게 된다는 불교적 세계관으로 윤색된 일종의 보응설화인데, 앞의 ‘쥐설화’와는 달리 갈등의 발단과 그 해결과정이 인과관계로 설득력있게 짜여져 있다. 다만 이 두 설화에서 공통적인 것은 眞·假 두 인물의 爭主 主旨와 갈등의 해결을 처벌위주로 처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雍固執傳」은 최종적 해결과정에서 화해와 재수용을 이상으로 하는 교화적 성격의 작자의식에 의해 민간설화의 서사적 전개구조를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수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두 설화를 함께 수용했다 하더라도, 갈등의 발단이 되는 사건을 단순히 불효와 불승학대의 기계적, 산술적 집적에 머물지 않고,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상위개념으로서 삶의 양식을 문제삼게 함으로써, 문제의식이 더욱 보편성과 강렬성을 획득하고 있다.

다음으로 ‘本生經’ 중 ‘일리샤 장로의 전생이야기’는 갈등의 전개과정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화해와 재수용의 결말을 보이는 점에서는 「雍固執傳」과 대비될 수 있으나, ‘本生經’의 제석천왕이 일리샤 장로의 父로, 前生先業에 의해 轉生된 인물이라는 데서 순전히 불교적 세계관에 따른 종교적 도그마가 강하게 작용하여, 샤머니즘적 민속신앙에 깊이 관련

47) 張德順, 앞의 책, p.204.

되고 그 사상성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雍固執傳」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제석천왕이 일리샤를 직접 상대역으로 하는 假일리샤로 둔갑하여 사전전계를 주도한다든지, ‘本生經’의 穢惡이 家法을 어기고 자신을 배풀지 않은 것이란지 하는 점에서, 그 인물구성과 관심하는 문제의 범위가 「雍固執傳」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협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雍固執傳」은 오랜동안 민간에 전승되던 둔갑, 眞·假爭主주의 설화를 변용해서 수용하고, 다시 화해와 재수용의 교화적 성격을 갖는 불교설화의 서사구조를 수용, 집합시킴으로써, 인간 존재의 삶의 양식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우러난 작자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본다.

## 7. 맺는 말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1. 기왕의 연구에서 중심과제가 되다시피해 왔던 근원설화의 탐색이란 그 성격상 완결적인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작업으로 진전되어야 하겠고, 설화의 전파성 이전에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과 공통의 사유방식에 따른 설화의 유사성이나 세계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배경적 원천인 설화와 그의 발전적 형태화인 소설(雍固執傳)을 단절된 관계가 아닌 연계적 체계로서 살펴볼 수 있는 시야와 방법론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화와 소설의 유사성을 문제삼을 때도 그 수준과 정도에서 보다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본전을 두고,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는 인물을 통해 유교관념의 낙약상을 나타낸 것, 또는 효를 앞세워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한 마디로 화소나 삽화 수준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결과일 뿐 작품 전체의 문맥을 통괄한 진정한 주제라 보기 어렵고, 권력과 부력에 항거하는 서민들의 생산적 사회의식을 그 주제로 파악한 것은 갈등논리의 무리한 적용에서 결과된 것이다. 도사나 학대사, 노모와 탁발승, 그 누구도 양반 지배계층인 응고집에 항거하는 서민층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식의 선택적 해석만으로는, 작품의 전체적 구성요소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인간의 실존적 삶이 물질과 정신을 이원화하여, 전혀 대립적이거나 이질적, 배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3. 본전의 인물구성을 보면, 주제적 의미실현에 기여하는 인물로 옹고집과 도사가 있고, 다시 도사에 의해 학대사가 등장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상대역인 진웅의 성격변화를 이끌어낸다. 일차적, 기본적인 대립관계를 성립시킨 노모와 탁발승이 절대적인 힘의 열세로 인해, 사전을 역동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웅의 악행에 희생이 되는 데 반해 작자의 작중개입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중간자 인물로서 도사가 등장하고 다시 그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보다 현실적 인물인 학대사가 사전전개에 직접 개입하게 됨에 따라, 최초의 상황에 대한 역전극이 가능해진다.

4. 본전에서 갈등의 발단은 삶의 양식을 자기 달리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야기되는 필연적 상황이다. 노모와 탁발승이 수평적 사교의 삶의 존재양식을 대변하는 데 반해, 진웅은 수직적 사교의 삶의 소유양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전자는 자아와 세계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진실된 만남을 통한 자아실현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힘의 우위를 통한 소유와 지배를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다.

5. 중간자 인물의 역할과 성격을 통해 작자의식을 효과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 작중에서 도사 또는 그의 대리자로서의 학대사는 삶의 존재양식을 적극 옹호하고 삶의 소유양식을 부정하는 한편, 화해지향의 인본주의적 인물로 행동한다. 따라서 다분히 교훈적, 교화적 성격의 인물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규범성을 일탈해 있는 파격적 인물<sup>48)</sup>일 지라도 질적 변화

48) 프로이트에 의하면, 소유에의 지배적인 방향설정은 완전한 성숙이 달성되기 이전의 시기에 나타나며, 만일 영속성이 되면, 그것은 병리적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유하고 점유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이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구성원이 향문애적 성격

를 거치게 함으로써, 다시 세계의 질서 안으로 수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작자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전에서의 풍자적 요소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형상화에 지나지 않으며, 작품 전체를 두고 풍자성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오히려 근원적인 융합을 추구하기에 스스로의 깨달음에 그치는 세계관적 골계<sup>49)</sup>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6. 본전은 둔갑, 眞·假爭主主旨의 민간설화를 적극적으로 변용해서 수용하고, 다시 교화, 교훈적 성격을 갖는 불교설화의 서사구조를 수용, 접합시켜, 인간존재의 삶의 양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화해지향의 작자의식으로 형상화해 간 작품이라 생각된다.

---

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하였다. (그런데 향문애적 성격에 대한 프로이트의 개념에는 실은 19세기의 서구 부르조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다.) (에리히 프롬, 앞의 책, p.122.)

49) 趙東一, 美的範疇(韓國思想大系, 成均館大 大東化研究所, 1973), pp. 525~526.